

제6강 성경의 맥잡기-출애굽시대

(출애굽기-신명기)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민족의 대이동 사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군사적 보복을 가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 행하신 기적은 매우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젖줄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고, 목자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애굽인의 장자가 죽게 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애굽군대를 따돌리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장정의 수는 60만이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추산해 보면, 20세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기에, 결혼한 부부가 80%라 가정할 때, 결혼한 여성 50만을 추가하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20세 미만의 남녀와 노인을 추산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족의 이동이라 하기에는 너무 너무 큰 숫자입니다. 이것은 민족대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200만 명의 인구가 대이동할 때, 그들의 짐과 가축과 짐승을 합한다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민족 대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100열 종대로 정렬시켜 행진했다면, 좁은 도로는 불가능하고, 넓은 도로로 계산해 봐도, 적어도 50마일, 80km 대열을 유지해야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성경의 중요한 구원사건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출애굽에 관한 것만,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가지 사건을 맥으로 집어 두어야 합니다. ①구원 ②율법 ③가데스바데나 ④40년 광야생활

1.구원 :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원받음 (출1-18장)

출애굽은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야만 했던 것은 출애굽이라는 실제적인 삶 속에게 부딪치게 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박해진 바로는 노예와 진배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로 변한 하수.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아홉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지만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을 치신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는 말을 들은 바로는 다시 마음이 변하여 모든 병거로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흐르고, 뒤에는 질풍처럼 애굽의 병거가 달려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넌 후에야 뒤따르던 애굽의 병거가 모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장정만 육십만 명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들어온 지 사백 삼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신들과의 전쟁” 이라 볼 수 있으며, 아홉 번째의 암흑 재앙은 애굽의 주신(해)인 태양신 라(Ra) 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재앙을 보이신 이유는 애굽과의 확실한 결별을 위하여, 구별을 확실히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유월절(Pass over)은 문자적으로 '넘어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출 12:11-14).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기 때문에 장자 사망의 재앙이 그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뜻이다.(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상징)

2. 율법 :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이 말씀 (출19-40장)

출애굽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도하 이후 시내 반도 남쪽으로 진행하다 시내산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계명을 받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율법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성막 (Tabernacle)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막 뜰로 돛 제단과 대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소(Holy)로 금 식탁과 금 촛대,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Most Holy) '지성소'라 불리웠는데 여기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과 계명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1-35:3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십계명, 안식일에 관한 율법, 성막에 관한 지시, 언약의 파기와 갱신, 유교절과 무교절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3. 가데스 바네아 : 하나님을 반역한 장소 (민10-14장)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일종의 오아시스이자 약속의 땅의 남쪽 관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12지파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보고를 받는데, 좋은 소식은 그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고, 나쁜 소식은 그 땅에 아낙자손의 후손 거인들과 사나운 군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브라임지파)와 갈렙(유다지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의존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보고를 더 신뢰하여 모세를 따라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을 반역한 장소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40년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4. 40년 광야생활 :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민20-36장)

언약을 잊고 현실만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십 년간의 광야 재활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38년)동안 언약을 받을 수 없는 불신의 세대가 물러가고 모두 새로운 세대로 채워집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불신의 구세대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했고 언약보다는 현실의 상황에 이끌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십 년의 광야 생활, 이 시간은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고생에 함께 하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구세대 중 마지막으로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숨을 거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